

## 려송복교의 국제정치학: 천하다국질서와 고려문종의 태평외교

하영선

### I. 머리말

1. Fairbank vs Rossabi

2. 제3의 해석

구미: Remco Breuker, *The formation of plural identities in medieval Korea (918-1170): History, ideology and identity in the Koryŏ dynasty.*(2010)

David Curtis Wright, *From War to Diplomatic Parity in Eleventh-Century*

*China: Sung's Foreign Relations with Kitan Liao*(2005)

중국: 楊渭生 『宋麗關係史研究』(1997)/魏志江 『中韩关系史研究』(2006)

陶晉生 『宋遼金史論叢』(2013) *Two Sons of Heaven: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1988)

林国亮 『高丽与宋辽金关系比较研究』(연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2)

일본: 毛利英介 “十一世紀後半における北宋の国際的地位について—宋麗通交再開と契丹の存在を手がかりに—”宋代史研究会編 『宋代中国』の相对化』(汲古書院, 2009)

한국: 노명호 “高麗時代の\_多面的\_天下觀과\_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1999)

정동훈 『고려시대 외교문서연구』(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 II. 천하다국질서와 복송

Rossabi/Breuker/Wright/陶晉生

《宋史》, 《遼史》, 《續資治通鑑長編》, 《宋會要輯稿》

吳曉萍, 2006 《宋代外交制度研究》, 安徽人民出版社.

黃純艷, 2014 《宋代朝貢體系研究》, 商務印書館.

冒志祥, 2012 《宋朝的对外交往格局: 论宋朝外交文书形态》

周立志, 2013 《宋朝外交運作研究》, 河北大學 博士學位論文.

1004 송과 요의 澶淵之盟

1010/18 요의 제2/3차 고려침입 강감찬의 귀주대첩

1030 고려 元頴등 293명 송 조공

1031 려송단교

1038 西夏建国

1042-1044 第一次宋夏战争, 宋败

1042 富弼出使辽朝

1044 宋夏慶曆和议, 宋每年贈西夏帛银等物品, 西夏称臣

1068 神宗即位 王安石推行變法

1071 려송복교

<『蘇東坡集』「奏議」通麗五害論(첫째 高麗使人이 매년 入貢할 때마다 朝廷 및 淮·浙 兩路의 제 반 경비가 約十餘萬貫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는 亭館을 修理하고 人船을 調發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비하면 고려사신이 가져오는 貢品은 모두가 玩好의 無用品으로 백성의 부담이 너무 크다. 둘째 使人이 도착하여 그를 접대하는 人馬什物과 亭館을 수리하는데 民力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셋째 고려가 宋에서 가져간 賜與品을 契丹에 流出시킴으로써 契丹의 入寇에 도움을 주며, 넷째 고려가 名分上으로는 中華를 사모하여 來朝한다고 하나 그 實은 利를 탐한 것이며, 그들이 宋에 들어와서 山川形勢를 圖畫하고 (宋)의 虛實을 조사하고 있으니 어찌 善意로 받을 수 있으며, 다섯째 仁宗 慶曆年間(1040~1048)에 契丹이 盟約을 어기고 먼저 塘泊을 增置하여 中國의 曲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契丹과 與國(同盟)관계에 있는 (고려를) 招來하고 사신이 빈번히 入貢하면 其曲이 塘泊에서 더욱 심하여질 것이며, 다행히 지금 契丹이 恭順하여 문제가 없으나 만일에 異日에 이를 트집하면 조정이 무엇으로 이에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

① 「論高麗進奉狀」 (1089, 元祐 4년 11월)② 「論高麗進奉第二狀」 (1089, 元祐 4년 11월)③ 「  
乞令高麗僧從泉州歸國狀」 ( 1089, 元祐 4년 12월)④ 「乞禁商旅過外國狀」 ( 1090, 元祐 5년  
8월)⑤ 「論高麗買書利害筭子 三首」 ( 1093), 元祐 8년 2월)

### III. 고려문종의 태평외교

이근명의 역음 『송원시대의 고려사자료1&2』(2010)

장동익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종합년표』(2009)

고려사(1068년 7월11일(음)辛巳, 1068년 8월 11일(양))

송 상인이 와서 왕을 알현하다

가을 7월 신사 송인(宋人) 황신(黃愼)이 와서 왕을 알현하고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강희양  
절형호남북로도대제치발운사(江淮兩浙荆湖南北路都大制置發運使) 나중(羅拯)을 불러 말씀하기  
를, ‘고려는 예로부터 군자의 나라라 부르고 그들의 선대부터 정성을 다하여 매우 부지런하였  
는데, 후세에 이르러 막히고 끊어진지 오래 되었다. 지금 들으니 그 나라의 군주가 현명한 왕  
이라 하니, 사람을 보내 효유(曉諭)할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나중의 추천으로 저희가  
와서 천자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객사의 대우가 넉넉하고 두터웠다.  
송(宋) 상인 임영(林寧)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宋史

熙寧 2년(1069; 高麗 文宗 23) 에 高麗의 禮賓省에서 福建轉運使 羅拯에게 公牒을 보내어 말  
하기를“本朝의 商人 黃眞註·洪萬 등이 와서, ‘轉運使가 [陛下의] 密旨를 받았는데[高麗와] 접  
촉하여 우호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國王의 뜻을 받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高麗가 궁벽하게 暘谷에 위치하면서도 멀리 天朝를 연모하여 祖上적  
부터 항상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사신이] 왕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平壤이 大遼에 가  
까워 그를 친근히 하면 화목한 이웃이 되고 소원하게 하면 강한 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변  
방의 난리가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국력을 키우느라 한가하지 못하였으며, 久困羈縻하면  
서도 그를 불친절하게 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述職을 어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  
다.....지금 [黃]眞·[洪]萬 등이 서쪽으로 귀국하는 판에 公狀을 부치니, 답장을 받아 보고서  
즉시 禮를 갖추어 朝貢하겠습니다.” 하였다.